

신선농산물 기능성 표시로 부가가치 올리는 일본

기능성 성분표시 농산물로 확대

일본에서는 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을 표시하는 기능성 표시가 농산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농산물을 기능성표시 식품*으로 등록하기 위해 산지와 연계한 성분 분석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슈퍼마켓에서는 기능성표시식품까지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기능성 성분이 많이 함유된 청과물을 한데 모은 코너까지 등장했다.

***기능성표시식품** : 일본 내에서 사업자의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품 패키지에 기능성을 표시한다고 소비자청에 신고 및 수리된 식품

산지와 기업, 기능성표시식품 등록에 주력

아오모리현의 JA쓰가루히로사키는 히로사키대학, 농연구구와 연계하여 사과에 포함된 프로시아니딘 성분에 주목했다. 이 성분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내장지방 감소 작용이 있다고 알려졌으며, 후지와 왕림 품종에 다량 함유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상품명 '프라임 애플(후지)'과 '프라임 애플(왕림)'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되었다.

도쿄, 오사카 슈퍼마켓 등에서 2017년산(2017년 9월~2018년 8월) 프라임 애플(후지) 670케이스(1케이스=10kg)가 통상 가격보다 1과당 30%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다. 또한 향후 건강의




식이 높은 아시아권 수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나가노현은 JA전농, 신슈대학과 연계해 특산물인 나가노퍼플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청하고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미노산의 일종인 GABA로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향후 전농이 소비자청에 신청할 예정이며,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된다면 포도 품목 최초로 기능성표시식품이 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나가노현은 현재 현내 버섯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나가노퍼플은 당도가 높고 알맹이가 거봉을 웃돌며 판매 가격은 크기와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1송이 1,000~5,000엔(약 1~5만원)이다. 거봉 가격이 1송이에 700~3,000엔(약 7,000~3만 원)인 것에 비하면 나가노퍼플은 지명도는 낮지만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홍콩과 대만에도 수출되고 있다.

식품제조사 카고메도 지난해 12월, GABA를 다량 함유한 신선 토마토를 수도권에서 발매했다. 카고메는 최초로 코치현산 신선 토마토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했다. 이 상품은 1개(65g)당 12.3mg의 GABA가 포함, 1일 1개 섭취를 권장하며 용기에 'GABA'와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라고 표기돼 있다.

|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주요 신선 농산물 |

품목	상품명	기능성 성분	품목	상품명	기능성 성분
 당조고추	당조고추	루테올린		GABA Select	
 감귤	히로시마 감귤	베타-크립토 크산틴	 토마토	히나토마 GABA	GABA
	아리타감귤			미디토마토 (후루티카)	
 사과	프라임 애플(후지)	사과 유래 프로시아니딘	 케일	소프트 케일 GABA	GABA
	프라임 애플(왕림)		 시금치	채소로 루테인 치지미시금치	루테인

| 상품명 : GABA Select
 기능성 성분: GABA |



| 상품명 : 프라이م 애플(후지)
 기능성 성분 : 사과 유래 프로시아니딘 |



기능성 청과물 특설 코너까지 등장

3월부터 수도권에 슈퍼마켓을 전개하는 토크스토어의 식품점 프레세(Precce) 메구로점에는 기능성 청과물 특설 코너가 등장했다. 해당 코너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리코펜이 통상의 2배 함유된 토마토(상품명: 풀 티카)와 안토시아닌이 통상의 약 10배인 순무(상품명: 베니 호우세 등 상시 7, 8종류가 있다.

판매 가격은 298~580엔(약 3,000~6,000원, 세금 별도)으로 일반 제품보다 높지만 건강에 신경 쓰는 60, 7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회사의 청과 바이어는 “한 달에 1,000점 가량 팔린다”며 판매 호조를 강조했다.

Key Point

한국산의 차별화,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 일본 시장에서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기능성'은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다소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고기능성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부터 시행된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활용한 신선식품 등록 상품수의 증가로 뒷받침된다. 지난 3월 27일 기준 28개의 신선식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산지 및 대학과 연계한 기능성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한국의 당조고추가 수입산 최초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되면서 타국산과 차별화된 가치를 보유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일본시장에서 한국산만의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현지시장 모니터링과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www.agrinews.co.jp, www.takii.co.jp, www.maff.go.jp, www.kagome.co.jp, www.ootamaruni.co.jp

